

건축사무소 전세버스 영리법인... 종단 수익사업은 선택 아닌 현실

■ 총무원 '사업부' 역할과 과제 ① 어떤 사업 진행하나

조계종 총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일 총무원 사업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종단 속원과 제로 껴있는 재정구조 다변화와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단은 최근 중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 관련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최종 검토한데 이어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사업부 실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13일 중무회의에서 1665만6000원의 올 하반기 예산을 의결했다.

총무원 사업부는 종단 산하 수익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비롯해 수익사업의 연구, 조사·기획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기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주

계획에 따른 <사찰도감>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불사 사례를 조사해 도면과 사진 자료 등을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한 도감을 펴낼 계획이다.

종단 내 수익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조사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사업부 관계자는 "여러 사찰이나 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은 거의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현재 사업들이 파편화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종단 사업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노하우도 공유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물적·인적 자원 현황을 파악해 종단 수익사업의 새로운 분야를 검토할 토대로서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해 나가려면 향후 추가 인력이나 예산부분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영리법인 설립도 고려해야 할 핵심사안으로 꼽힌다. 지난 3월 열린 20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사업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총무원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비영리 법인인 종단의 수익사업 전개에 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기획실은 "본격적인 수익사업이 필요할 경우 별도 법인과 사업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으로 공감받는 양명한 사업부 총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부가 수익사업 관리 및 운영 등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향후 조계종출판사를 좀 더 확대 개편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 관계자는 "분담금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수익사업을 제외한 추가 재원마련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은 선택이 아닌 현실"이라며 "향후 성공적인 수익사업 모델 개발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맹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스님에게 합장인사하고 있는 펜싱부문 국가대표 신아람 선수(왼쪽).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흘린 피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총무원장스님 태릉선수촌 방문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단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맹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금일봉을 전달하고 불자 선수들의 손목에 단주를 채워주며 힘을 불어넣었다.

지난 18일 태릉선수촌에 도착한 총무원장 자승스님 일행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선수촌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으며 챔피언하우스에서 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오는 8월6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제31회 하계올림픽에는 23개 종목 210명의 한국 선수단이 출전한다. 우리나라는 4회 연속 종합 10위권 내의 성적을 거두겠다는 목표다.

총무원장 스님은 “올림픽은 알다시피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큰 행사”라며 “모든 선수

들이 오랜 기간 피땀을 흘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다독였다. 이에 김정행 체육회장은 “1984년 LA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 규모인 데다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적응, 현지 치안과 질병 문제로 어느 때보다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도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격려방문을 해주신 만큼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불자 대표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와 문형철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에게 단주와 복주머니를 선물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아울러 최충삼 태릉선수촌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며 선수들이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촬영을 마친 뒤 각 종목별 훈련장으로 이동한 총무원장 스님은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참관하며 인사를 나눴다. 역도장 태권도장 체조장을 둘러보며 “열심히 꼭 메달을 따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사해주기 바란다”며 독려했다. 특히 런던올림픽 ‘비운의 은메달리스트’ 펜싱 신아람 선수를 마주치자 손목에 단주를 걸어주며 환한 미소로 응원했다.

이날 격려방문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선수촌 법당 주지 퇴휴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박종길 체육인불자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

장영성 기자 fuel@ibulgyo.com

“옥천사 나한상 소장자 기증 뜻 있다”

유홍준 교수, 본지통화에서 밝혀

30년 전 도난당한 고성 옥천사 심육나한상 가운데 일부가 지난 2013년 제주 한 사립박물관에 전시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나한상 소장자가 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시를 기획했던 유홍준 명지대 교수는 지난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소장자가 (나한상을) 선의취득했으나 최근 옥천사 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증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며 “문화재청에서 취득경위를 밝히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취득경위가 확인되면 기증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현재 옥천사 나한상 건에 대해 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사 또한 소장자가 기증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반기워하며, 문화재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옥천사 심육나한상은 1988년 1월30일 전체 16구 가운데 7구가 도난당했다. 사라진 7구 가운데 2구는 지난 2014년 도난문화재를 은닉한 사립박물관장이 검거되면서 환수돼 5구만 도난된 상태였다. 제주 본태박물관에 전시된 2구의 나한상이 소장자 기증으로 사찰로 돌아온다면, 13구 나한상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총본산성역화에 5000만원 기탁

화엄사 “불사 동참하게 돼 기뻐”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기금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에 전달되며 서울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대로 조성하는 데 쓰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절 살림이 어



려운 때인데도 성역화에 동참해줘 고맙다”며 “종단을 위해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영관스님(사진)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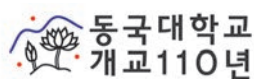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는 8월17일까지 불사기금 마련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입금고조계종사무처)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 ‘분담금 제도개선’ 1차 공청회 현장 3면



수능시험 없이! 내신성적 없이!

불교학 학사 학위에 도전하십시오!

불교학을 공부하고 싶으셨지만 때를 놓치신 분, 은퇴 후 포교활동을 위해 전문적인 교리공부가 필요하신 분,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보다 깊이 있는 불교학 연구를 하고 싶으신 사찰 주지스님.

이제 수능시험 없이도 학점은행제 불교학 전공과정에 입학해 동국대학교 총장명의로 학사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02) 2260-8996 / dgus@dongguk.edu



2016년 2학기신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전공 학사학위과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중퇴자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모집기간 ·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 까지
접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진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edulife.dongguk.edu)
· 방문접수 : 동국대 학습관 1층 평생교육원 행정팀
모집분야 · 주중과정 (매주 월, 화 09:00 ~ 18:30 수업)
· 주말과정 (매주 토 09:00 ~ 21:30 수업)

